

자크 랑시에르의 ‘문학의 정치’의 재맥락화: 진은영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정의진*

1. 서론: 진은영의 문제제기
2. 문학과 정치의 ‘직접적인’ 접합
3. 문제의 문학사적·사회역사적 기원
4. 자크 랑시에르의 재전유에 대한 질문들
5. 나오는 말: 지연된 만남과 새로운 시작

〈국문초록〉

진은영이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에 발표한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가 한국문단에 불러 일으킨 파장은 컸으며, 이로부터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었다. 이 글에서 진은영은 프랑스의 정치 학자이자 미학자인 자크 랑시에르의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 : 미학과 정치』를 주로 참조하였다. 참조의 핵심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새롭게 사고하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진은영은 시인의 현실참여와 시의 예술성 사이의 이분법적인 대립관계를 생산적인 상호작용 관계로 전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고들을 랑시에르에게서 길어왔다. 문학예술적인 창조성이 사회적인 관습에 입각한 감각과 사고, 나아가 사회의 정치적인 지형도를 새롭게 재편해

* 상명대학교

나가는 기획과 실천을 위하여, 진은영은 ‘예술의 미학적인 체제’의 지속적인 재구성이라는 랑시에르의 입론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재맥락화하는 다양한 실천을 수행하였다. 문인들이 용산참사, 두리반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도, 사건의 현장에서 소위 사회성과 예술성의 이분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경향의 시와 텍스트들을 공유하는 작업이 그 한 예이다. 시와 문학이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사회현실에 지속적인 개방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시인 스스로의 감수성에 새로운 예술적, 정치적 계기를 부여하는 것, 나아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새로운 지평속에서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진은영의 입장이고 실천이었다.

사회경제적 맥락속에서 진은영의 작업을 되짚어 볼 때, 진은영의 작업은 2008년 촛불시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붕괴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통해 확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2009년 초입의 용산사태 등 일련의 국내외적 상황이 한국사회와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사고해야 할 필요성과 맞물려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문학사의 현대적 전개과정속에서 강력하게 부상하였다가 1990년대에 접어들어 급속하게 퇴조한 경향, 즉 변혁지향적 문학의 기억을 새롭게 환기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기억은 문학을 변혁운동의 도구로 간주하는 사고와 실천의 폐해와도 맞물려 있다. 추상적인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규정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응하고자 한 문학적 실천은,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이질적인 상황의 공존과 상호침투라는 실제 사회의 현실을 단순화하기 일쑤였다. 사회경제적 토대 내지 구조적인 모순에 집착하기 보다는, 이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문학예술의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자크 랑시에르의 입론을 진은영이 적극 수용하였던 이유를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랑시에르에게서도 진은영에게서도,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다. 미리 결정된 진리는 없다라는 랑시에르의 근본 관점에 진은영은 충실하다. 따라서 진은영의 랑시에르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 정확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필요하고 유의미

하기는 하지만 한계를 가진다. 문제의 핵심은 가능성의 탐구이고 실천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자크 랑시에르, 진은영, 문학과 정치, 예술의 미학적 체제,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

1. 서론 : 진은영의 문제제기

『창작과비평』 2008년 겨울호에 발표된 진은영의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¹⁾가 한국문단에 불러 일으킨 파장은, 이 글에서 촉발된 논의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일 정도로 크다.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 : 미학과 정치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²⁾를 비롯한 자크 랑시에르의 몇몇 저작들이 막 한국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그 해에, 진은영에게는 랑시에르의 이 책이 “문학과 윤리 또는 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 영원회귀하는 질문들”³⁾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준 책이었다고 한다. 진은영에게 그 영원회귀하는 질문들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지지 방문을 하고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 이것은 창작 과정에서 늘 나를 괴롭히던 문제이다. 나는 이 난감함이 많은 시인들이 진실된 감정과

1)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142호, 2008. 이 글 이후에도 진은영은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여러 논문과 비평을 발표하였고, 이를 모아서 『문학의 아토포스』(그린비, 2014)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이후 진은영의 여러 글에 대한 인용은, 원래 수록되었던 매체와 출간년도를 최초 인용시 밝히되, 인용 쪽 수는 이 단행본을 기준으로 한다.

2) Jacques Rancière,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Paris, La Fabrique, 2000.

3) 진은영, 앞의 책, 16쪽.

자신의 독특한 음조로 새로운 노래를 찾아가려고 할 때 겪는 필연적 과정일 거라고 믿고 싶다.⁴⁾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이라는 문제는 동서양 여러 나라의 현대문학사에서 부각된 문제이며, 이 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시기와 상황은 나라마다 편차가 있다. 한국문학사의 경우 이 문제는 20여 년 전까지 뜨거운 쟁점이었다. 1980년대는 1960-70년대의 순수/참여 대립구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주의리얼리즘에 입각한 계급문학론이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시대이다. 진은영은 바로 그 시대가 저물기 시작하던 1990년대 전반기에 대학을 다닌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로만 따져도 십수 년 정도는 흐른 시점일 2008년에, 진은영은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마치 현재형인 것처럼 다시 제시한다. 자신에게는 분명히 오래된 난감함일 이 문제를, 진은영은 ‘다수 시인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즉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이라는 새삼스러운 문제에 대한 재론이 어디까지 공유가능한 것인지부터가, 2008년 시점에서 진은영 스스로에게도 의문시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결과는, 이후 진은영의 이 글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들은 물론이고, 문학과 정치, 문학의 정치성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확장되었다.⁵⁾ 이 문제를 진은영은 ‘영원회귀하는 질문들’이라

4) 위의 책.

5) 이는 주요 문학지들의 특집을 일별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확인가능하다. 한편 2008년도 겨울 진은영의 문제제기를 전후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평론과 논문들도 2010년 무렵부터 발표되었는데, 다음 두 글을 예로 들 수 있다. 신형철, 「가능한 불가능 : 최근 ‘시와 정치’ 논의에 부쳐」, 『창작과비평』 147호, 2010 ; 백지은, 「『문학과 정치』 담론의 행방과 향방 : 2000년대 중후반의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호, 2010. 진은영은 「한 진지한 시인의 고뇌에 대하여」(『창작과비평』 148호, 2010)라는 글로 자신의 입장에서 논쟁을 재구성하였다. 한편 2014년에 출간된 진은영의 『문학의 아토포스』에 대한 서평들은 진은영의 문제제기와 실천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사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다음의 두 글을 참조할 수 있다. 문성욱, 「문학의 정치, 텍스트의 정치」, 『문학과사회』 110호, 2015 ; 이경진, 「아토포스’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방가르드」, 『창

고 표현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낮익은 문제가 한국문단내에서 새삼스럽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진은영은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동시대, 즉 '2000년대의 한국시'와 관련지어 제기하였다.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 2000년대 들어서 낯선 감각과 새로운 어법으로 무장한 젊은 시인들이 '집단적'으로 출현했다고 말한다. 이들의 출현에 대한 반응, 이 집단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소통 불능의 자폐적이고 이기적인 문학이라는 신랄한 비판이나 조금만 더 자아 밖으로 나오라는 애정어린 충고에서부터, 여러분이야말로 '도래'할 문학적 민중이 될 거라는 뜨거운 격려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반응들의 폭발에 정작 시인들은 당황했다.⁶⁾

2000년대 한국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열거하면서, 진은영은 자폐적일 정도로 사적인 자아에 갇혀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우선 언급한다. 그런데 이러한 2000년대의 시적 경향을,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이라는 문제제기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가, 사실이 글의 이 대목에서는 표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앞에서 인용한 대목의 문제의식은 1980년대까지 중심적인 문제였고, 이어서 인용한 대목은 2000년대 시의 상황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진은영은 이 둘을 '병치'하면서, 이것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말한다. 논리적인 결여를 크게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이 두 문제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으로 이 문제들이 적어도 진은영 개인의 의식 속에서는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논리적 결여의 틈새를 메꾸는 문장이 있다면, 2000년대의 한국시에 대해서 "여러분이야말로 '도래'할 문학적 민중이 될거라

작과비평』 167호, 2015.

6) 진은영, 앞의 책, 16쪽

는 뜨거운 격려"도 있다는 문장일 것이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사실 직접적인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기는 힘들다. 있다면 '민중'이라는 단어 정도인데, 이 민중은 일반적인 사회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중이 아니라 '문학적' 민중, 그것도 겨우 징후로만 존재하는 '도래할' 민중이며, 이 민중의 구성원은 '시인들' 자신이다.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시인의 숫자는 한국인 전체와 대비해 볼 때 어쨌든 절대적 소수이다. 그런데 민중은 어디까지나 사회정치적 지배계급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 내지 시민을 지칭하는 용어이지 어떤 경우에도 소수, 그것도 숫적으로 거의 의미 없는 소수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다. 시인들에게, 특히 일견 자폐적으로 보일 정도로 특수한 자기만의 언어로 시를 쓰는 2000년대의 시인들에게 만약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에 상응하는 표현은 문학적 아방가르드, 혹은 당대적인 상황에서 의식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고수하는 시인들 정도일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유입된, 자크 랑시에르보다 십 수년 정도 선행인 푸코, 들뢰즈, 데리다 등의 프랑스 현대철학의 영향은, 한국의 문학비평, 특히 시 비평에서 '소수', 주변부' 등의 용어를 쉽게 발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⁷⁾ 영미권의 급진적 문화이론과 성정치학, 페미니즘 등의 영향 또한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의 공동체' 등의 용어를 친숙한 용어로 만들었다.

결국 '문학적 민중'과 같이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민중도, 그렇다고 예술적인 아방가르드를 지칭하는 것도 아닌 애매하기 그지없는 표현에 진은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신형철은 "직접적으로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참여하게 미학적이고 싶다는, 결코 흔치 않은 이중의 욕망"⁸⁾에

7) 가령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Kafka-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Paris, Minuit, 1975 (국역본 : 질 들뢰즈, 펠릭스 과타리, 『카프카-소수집단의 문학을 위하여』, 조한경 역, 문학과지성사, 1992)를 명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 이후에 쓰여져서 『문학의 아토포스』에 실린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럴」, 「문학의 아나크로니즘 : 작은 문학과 소수문학」 등의 글에서, 진은영 또한 1990년대 이후의 특징적인 논의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신형철, 「가능한 불가능 : 최근 '시와 정치' 논의에 부쳐」, 『창작과비평』 147호,

서 찾는다. 서구의 전위적인 문학에 대한 해석이 종종 미학적 첨예함에 '유비적으로' 정치적인 급진성을 부여하는 문제라면, 진은영은 이와 달리 정치적으로도 직접적인 변혁적 함의를 지닌 시를 원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이중의 욕망을 동시에 전개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진은영은 자크 랑시에르의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 : 미학과 정치』에서 발견하였다고 한다.

진은영의 문제제기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이러한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 글들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들을 또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본 논문의 주안점은, 진은영의 문제제기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사회역사적이고 문학사적인 맥락을 되짚어 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동시에, 본 논문은 자크 랑시에르라는 프랑스 이론가의 기본적인 입론을 진은영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재전유하였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2. 문학과 정치의 '직접적인' 접합

2008년에 발표된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가 일으킨 파장에 다시 답하기 위하여 쓴 글 「한 진지한 시인의 고뇌에 대하여」에서, 진은영은 당시의 글이 “사실은 가망이 없다고 느끼기조차 하면

2010, 371쪽.

9) 이는 가령 한국의 문학비평에서 90년대 들어 흔하게 접할 수 있었던, 들뢰즈와 과타리의 이름을 빌어 왔으며 실은 종종 논리적으로 단순화되어 막연하게 반제도적이고 일탈적인 언어나 상상력을 의미하던 '탈주의 욕망'과도 따라서 다르다. 이와 관련해서 진은영의 들뢰즈 이해는 보다 정확하다 : “들뢰즈는 탈근대문학에서 표준어에 대항하여 방언성을 특권화하는 오류에 대해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프루스트의 말마따나 문학은 일종의 외국어의 자취를 언어 속에 정확히 그려나간다. 그 외국어는 색다른 언어도 되찾은 방언도 아니다. 다만 언어의 생성-다름이 이 주언어의 가치 하락, 그 언어를 붙잡고 있는 정신착란, 지배 체계에서 새어 나오는 마녀의 선이다.”(…)즉 방언성은 되찾아야 할 궁극의 이질성이 아니라 지배적 언어의 가치 하락에 기여하는 순간에만 의미있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진은영, 「시와 정치 :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델」, 『비평문학』 39호, 2011. 『문학의 아토포스』, 151-152쪽).

서", "말하면서도 스스로 그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최소한의 확신도 없이" 썼다고 고백한다.¹⁰⁾ 이러한 고백은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2008년도의 시점에서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는 것이 얼마간은 무리스러워 보일 정도로, 이 문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난 주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주제에 접근하는 관점과 방식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사이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진은영의 글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사실 2000년대 내내 문학의 정치성이라는 화두가 한국문단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때 문학의 정치성은 주로 '문학의'에 방점이 찍히는, 즉 문학 언어와 텍스트의 '내재적 정치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시적인 사회정치적 주제나 문제의식이 부재하는 듯 보이더라도, 기존의 제도적 관습과 사고방식을 거스르는 문학언어의 특수성이 그 자체로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 문단 내부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한국문단의 이러한 상황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문학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판단을 내포하고 있었다. 우선 1980년대에 들어서 첨예화된 사회주의리얼리즘에 입각한 계급문학론이, 문학을 변혁운동의 도구로 간주하면서 문학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적지 않은 폐해를 유발하였다는 기억 내지 인식이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일반화되기까지,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응하고자 한 문학적 실천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이질적인 실제 사회의 현실을 추상적이고 이분법적인 사회계급론의 관점에서 무리하게 단순화하였다는 비판과 반성이 이어졌다. 즉 사회정치적인 변혁의 과제에 복무하고자 하였던 문학의 쇠락은, 문학적 실패인 동시에 결과론적으로 그 문학이 전제하고 있던 사회정치관의 실패 내지 시효만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시대는 이미 1950-60년대가 아니었다. 직접적인 사회정치적 문

10) 진은영, 「한 진지한 시인의 고뇌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148호, 2010. 『문학의 아토포스』, 37쪽.

제의식이 두드러진 문학적 경향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곧 '비정치적 순수 문학'에 대한 경도를 의미하던 시대는 지나간지 오래였다. 오히려 상당수의 작가와 평론가 및 연구자들은 변화된 시대에 조용하는 새로운 사회정치론과 문학을 연결짓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나갔다. 소위 거대담론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일상의 사회학', '미시 정치학' 등이 자주 거론되던 상황하에서, 문학적 언어와 내용의 특수성과 구체성이 새로운 사회의 맹아일 수 있다는 관점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¹¹⁾ 앞서 언급하였듯 들뢰즈의 '탈주' 개념 등을 차용하여 문학적 언어와 감수성의 비제도성 내지 반제도성에 아방가르드적인 정치적 함의를 부여하던 논의들의 유행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 다수의 이면에, 보다 직접적인 사회정치적 효과를 겨냥하는 문학적 시도들에 대한 극도로 신중한 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반응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은영의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는 이러한 문학적 관점들과 일정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진은영은 랑시에르를 빌어서, “예술의 정치성은 특정 변혁 주체에 대해 언급하거나 사회적 부정의를 고발하는 작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¹²⁾는 점을 새삼 강조한다. 이미 진영논리에 입각해 있는 참여예술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재확인 할 뿐 사회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랑시에르의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한다.¹³⁾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위해서라면

11) 이러한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최근의 문학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글로는, 백지은, 「“문학과 정치” 담론의 행방과 향방 : 2000년대 중후반의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호, 2010 을 참조할 수 있다.

12) 진은영, 앞의 책, 29쪽.

13) 특히 사르트르를 통해 그 의미가 보편화된 문학예술의 '참여(engagement)' 개념과 입장에 대한 자크 랑시에르의 비판, 즉 작가의 직접적인 상황개입과 텍스트의 내용 차원에서 문학과 정치의 함수관계를 논하는 전통적인 논의에 대한 비판은 그의 저서와 인터뷰 여러 곳에서 접할 수 있다. 진은영은 2008년의 글에서 *Le Partage du sensible : esthétique et sensible*의 국역본인 『감성의 분할』(오윤성 역, 인간사랑, 2008)에 근거해서 랑시에르를 인용하거나 요약하고 있다. 그런데 '참여'에 대한 랑시에르의 비판적 입장은 *Le Partage du sensible*의 프랑스어 판의 직

굳이 랑시에르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학의 정치성에 관련된 논의들 가운데 이러한 입장은, 프랑스와 한국을 막론하고 2008년의 시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너무도 흔하기 때문이다. 결국 진은영이 랑시에르를 빌어서 제기한 예술의 새로운 정치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일정한 차별성이 있었다면, “문학 텍스트와 다른 사회적 텍스트의 끊임 없는 접합”¹⁴⁾을 공론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문학이 문학적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정치현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시도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진은영은 주장하였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미학적 실험은 예술과 정치라는 서로 이종적인 것들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상상이다”¹⁵⁾

진은영의 이러한 제안은 2000년대 젊은 시인들의 새로운 시경향을 화두로 삼아서 제기된 것이었다. 즉 진은영이 사회적 텍스트 및 정치와의 새로운 결합을 제안한 우선적 대상은, 직접적인 정치성을 표방하는 시들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 시를 쓰는 젊은 시인들이었다. 이는 과거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사회정치적 문학들의 한계를 염두에 둔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의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나 효과에 대해 이렇다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혹은 회의적일 수 있는 시인들에게, 문학과 정치의 새로운 결합에 대한 제안이 상당히 돌출적인 제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접적인 주제가 아니다. 역자가 국역본의 주에서 밝히고 있듯이, 진은영이 인용하는 내용들은 *Le Partage du sensible : esthétique et sensible* 의 영어판(*The politics of aesthetics*, Continuum, 2004) 출간을 계기로 번역자와 프랑스로 진행한 인터뷰가 보론으로 실린 영역본의 내용이다. 한국어 번역자는 원래 프랑스로 진행된 인터뷰가 그대로 실린 Ligne지 19호를 참조하여 이를 국역본에 실었다. 이를 주에서 굳이 다시 밝히는 이유는, 판본에 따라서 혼동이 생기는 상황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진은영이 인용하는 국역본의 ‘참여’ 비판은 85-94쪽을 참조할 수 있다. 한편 참여문학론에 대한 랑시에르의 또 다른 비판적 정식화로는, Jacques Rancière,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Paris, Galilée, 2007, p.11-12(국역본 :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9-11쪽)을 참조할 수 있다.

14) 진은영, 앞의 책, 34쪽.

15) 같은 책, 30쪽.

진은영의 이러한 제안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되짚어보기 위해서, 90년대 이전 한국문학의 지형도에서 사회정치적인 문학이 점하고 있던 위상을 우선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여문학론에서 민중문학론 및 계급문학론으로 이어지던 한국문학의 한 축이 심대히 약화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문학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에 보다 천착하던 문학적 입장과 실천들의 입지를 강화하기보다는, 문학전반의 대사회적 영향력의 현저한 약화로 귀결되었다. 이는 역으로, 직접적인 사회정치적 지향성을 표방한 문학적 입장의 교조성과 경직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와 대립하거나 이와는 차별적인 문학적 지향들 또한 사회정치적 문학과와의 '관계설정'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소위 '적'이, '타겟'이 사라진 시대에 문학을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호소한 작가들은 결코 민중문학 계열 작가들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온 세대들, 즉 90년대에 20대를 맞이한 진은영과 같은 세대는, 정작 그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활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무슨 시를 쓰던 더 이상 국가나 권력이 신경조차 쓰지 않던 시대를 살았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쓴다지만/ 우리에게/ 아무도 총을 겨누지 않는다/ 그것이 비극이다"¹⁶⁾

진은영이 2008년의 글에서 거론한 "낯선 감각과 새로운 어법으로 무장한" 2000년대의 젊은 시인들을 둘러싼 논의, 가령 '미래파' 등에 대한 논의의 영향력은, 1960-70년대의 참여문학론이나 1980년대의 민중문학론이 불러일으킨 대내외적 파장과 비교하면 '찾잔속의 폭풍'이라고 일컫기에도 민망한 파장이었으며, 과거 한국문단의 모더니즘이나 아방가르드를 표방한 문학적 경향들에 대한 관심과 비교해보아도 현저하게 제한적인 관심만을 유발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은영은 2000년대 젊은 시인들의 새로운 감각과 어법에 대한 "상이한 반응들의 폭발에 정작 시인들은 당황했다"라고 썼지만, 이를 '폭발'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독자들

16) 진은영, 「70년대산」, 『우리는 매일매일』,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8, 76쪽.

에게는 주관적이고 과장된 표현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일군의 젊은 시인들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태도는, 좌표를 상실한 채 악전고투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자기 세계와 언어를 개척해 나가는 시인들에 대한 일부의 '안쓰러운 관심' 아니었을까?

결국 2000년대 후반 한국 시단의 상황을 진은영이 설정한 논의구도를 따라서 정리해 보면, 직접적인 사회정치성을 표방하는 시적 경향의 지속적인 약화와, 보다 강화된 젊은 시인들의 자기언어에 대한 탐구가 가지는 제한된 영향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은영은, 랑시에르를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한국문학의 문학과 정치의 상호작용 구도를 다시 짜자고 주장하였다.

텍스트들 간의 얽힘과 직조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문학 텍스트와 다른 사회적 텍스트의 끊임없는 접합이다. 이 이질적 접합의 지속적 가능성을 예술가가 자신의 삶 속에 마련해 두지 않는 한, 문학적 발명이 충분히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치안 질서 내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자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들과 직접 조우하는 것, 의회민주주의의 형식으로부터 무질서하게 빠져나오는 정치적 열정의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며 엉뚱하고 다채로운 상상력을 발동시켜 보는 것. 예술 활동의 모든 시간이 이것들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 없이는 의미작용을 하는 감성적 조직을 교란시키는 계기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것이 랑시에르의 전언이다. 삶과 정치가 실험되지 않는 한 문학은 실험될 수 없다.¹⁷⁾

“치안 질서 내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자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들과 **직접 조우하는 것**”(강조는 논문작성자), 이것 없이는 진정으로 새로운 문학적 발명이 불가능하다는 진은영의 결론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17) 진은영, 앞의 책, 34쪽.

우선, 동서양문학사를 개략적으로만 더듬어보아도, 과연 이러한 직접적 조우를 수행한 작가들만이 진정으로 창조적인 작품들을 생산했느냐는 질문이 곧바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러한 진은영의 주장이 정말로 랑시에르의 전언과 일치하느냐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문성옥은 설득력 있는 비판적 분석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둘 사이의 아귀가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랑시에르 자신은 “미학적 덕목과 정치적 덕목 사이의 상관관계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없다. 선택지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며 선험적 지침의 부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진은영은 이런 문장들을 고려한다. 하지만 그것들의 함의를 미묘하게 변주한다. 예를 들어, 랑시에르는 예술과 정치의 올바른 관계를 결정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 “예술과 정치가 섞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이들의 요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어느 경우에도 서로 뒤섞인다”고 말한다. 양자의 연관은 무조건적 소여이므로 둘 사이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은 난센스이다. 그런데 진은영은 이를 하나의 조언으로 받아들이며, “예술작품의 정치성에 대한 어떤 완고한 비평적 기준을 전제함으로써 오히려 다양한 방식으로 감성적 불일치를 구성하는 창조적 실천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쓴다.¹⁸⁾

논문 작성자의 랑시에르 독서에 따르더라도, 문성옥의 이러한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의 자의 미학이 있고 미학은 자신의 정치가 있다”¹⁹⁾라는 랑시에르의 말이, 예술가의 정치

18) 문성옥, 「문학의 정치, 텍스트의 정치」, 『문학과사회』 110호, 2015, 506-507쪽. 참고로 문성옥의 이러한 비판은 진은영이 김수영을 해석하는 관점과 방식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그의 입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서, 문성옥은 경청할만한 심도 있는 문제제기를 이 글에서 하고 있다. 문성옥의 글 전반에 대해서 다룰 수 없음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 논문의 4장에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그의 글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다.

19) 자크 랑시에르, 『감성의 분할』, 앞의 책, 88쪽.

사회적 사건과 상황 속으로의 직접적인 개입,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밖에 존재하는 정치적 열정의 공간과 섞이기라는 진은영식 기획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본 논문이 주되게 초점을 맞추어 사고해보고자 하는 점은, 진은영의 랑시에르 인용과 해석이 정확한가라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질문을 바꾸어 보자. 만약 진은영이 랑시에르의 입론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옮기고 이를 제안하였다면, 과연 진은영의 제안과 주장이 그렇게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 진은영의 랑시에르 인용이 다소간 ‘왜곡’을 동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왜곡에 정확하게 ‘태풍의 눈’이 자리잡고 있다면? 다양한 논자들이,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문학과사회』, 『실천문학』, 『작가세계』, 『크리티카』, 『문장웹진』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져 있는 문예지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한 토대가, 진은영이 자신의 영원회귀하는 질문과 90년대 이후 한국문학사의 전개상황에 근거해 랑시에르를 ‘비틀어’ 수용한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 지점이 기존의 고착된 한국문학의 상황을 크게 흔들어 놓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그렇다면, 논의의 현실적인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진은영이 랑시에르를 자기식으로 재전유하고, 이러한 재전유가 문단에 파장을 일으킨 문학사적·사회역사적 맥락을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문제의 문학사적·사회역사적 기원

문학과 정치의 새로운 ‘직접적인 접합’을 위한 진은영이 글이 큰 파장을 일으킨 문단내의 상황은, 2008년을 전후하여 분명히 문학 외부적인 사회정치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로 촉발된 대규모 촛불시위가 2008년 5월 내내 이어졌다. 김대중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소위 민주화세력 집권 10년 동안 누적된 한국시민들의 실망감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득표율 차이, 그리고 가장 높은 선거 불참률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

직후에 촛불시위가 분출했다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문학동네』의 특집 좌담 제목처럼 말 그대로 ‘질문’이었다.²⁰⁾ 이 좌담을 읽고 진은영은, “문학과 정치를 함께 사유하려는 시도”²¹⁾에 익숙한 세대는 자기 세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반성했다고 한다 ; “미학적으로 발랄하기 이를 데 없는 ‘80년대산’ 시인 오은이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시와 정치에 대해 다른 시인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했다.”²²⁾ 이러한 확인은 사실 문학계를 광범위하게 넘어서는 것이었다. ‘점점 더 탈정치화되는 신세대’라는, 90년대 중반 이래 거의 정치적 후렴구처럼 반복된 진단을 다시 한 번 재고하게 만든 것이 촛불시위의 여러가지 의미 중 하나였다. 정리하자면 촛불시위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 번째로, 그때까지 어쨌든 한국 민주주의 운동사가 축적한 결과물들을 제도적으로 대변한다고 간주되던 주요정당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의 표출 직후에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사고하도록 강제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개를 감당해야 할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고민과 질문이 이어졌다.

결국 2008년 촛불시위에 대한 한국문학계의 반응에서, 과거의 중요한 사회정치적 사건에 대한 반응과 비교해서 좀 더 특별한 열기가 감지된 것은 사실이다. 가령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SNS 선거전, 그 직전에 주한미군장갑차량에 깔려 사망한 여중생 신효순·심미선 양 추모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정치적 결집력 등에 대해서도, 여러 문학계간지들이 나름의 입장을 표명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²³⁾ 이 때에도 탈정치화 된 줄 알았던 신세대가 실은 변화한 사회환

20) 심보선·이현우·오은·이문재 좌담, 「‘촛불’은 질문이다」, 『문학동네』 56호, 2008.

21) 진은영, 앞의 책, 37쪽.

22) 위의 책.

23) 이정진의 적절한 지적대로, “신작시와 신작소설의 앞뒤에 전반적인 시국 비판과 정치적·사회적 논평이 있으며, 철학논문을 방불케 하는 지성적 사유의 장이 펼쳐지기도 하고, 온 분야를 망라하는 근간들의 리뷰가 있는, 한국에서는 사실상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 문예지의 이러한 배치로 인

경과 미디어 환경속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정치문화를 발전시킬 능력이 있음을 사후적으로 인정하는 반성이 잇따랐다. 그런데 2002년에도 변함 없던, 거의 전통이라고 부를만한 한국의 주요 문학계간지들의 사회정치상황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이 시점에서는 한국 문학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다시 성찰하는 계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2008년 촛불시위 국면에서 한국문단의 반응이 좀 더 구체적이었던 이유의 일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통령 후보로 인격화되는 특정 제도권 정당을 매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열정이 광범위하게 결집되고 분출되었던 선거인 2002년 국면에 비해,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 직후의 촛불시위가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형성되었던 것 아닐까? 더 포괄적으로는,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과거와는 또 다르게 어느덧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정치상황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강화되었던 것은 아닐까²⁴⁾ 1990년대가 동구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기존의 사회주의적인 이념적 좌표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면서 시작되었다면, 2007년에서 2008년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보수에 비해서 상대적인 진보성 정도를 표방하던 제도권 정당에 대해서까지도 광범위한 불신이 현실화 되었으며, 이런 맥락 속에서

하여 시는 그것이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과 정치의 연계는 직관적으로 당연시되었으며 그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관습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정진, 「아토포스」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방가르드, 『창작과 비평』 167호, 2015, 257쪽.

- 24) 「‘촛불’은 질문이다」라는 2008년 『문학동네』 좌담에서 이문재의 다음과 같은 말은 촛불집회에 대한 상당수 작가들의 문제의식을 압축하고 있다 ;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를 최초로 제안했던 친구가 문장과 4학년 여학생입니다. 그리고 최초 연행자도 문장과 학생이고, 아고라의 대표 논객 가운데 한 사람도 시인 지방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에 문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문학적 감수성은 엄연히 살아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저를 포함한 ‘기성 세대’의 안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학에 안주하는 문학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보선·이현우·오은·이문재 좌담, 앞의 책, 44쪽. 이러한 이문재의 문제제기와 반성은, 진은영의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과 이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촛불시위는 분명히 한국정치사의 또다른 변곡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창작과 비평』 2008년 겨울호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특집 - 문제의 진은영의 글이 실린 그 특집 - 을 여는 백낙청의 글,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의 서두는 시사적이다. 백낙청은 이 글을 촛불집회에 대한 단상으로 시작한다 ; “지난 여름의 촛불집회에서 문학의 역할은 별로 두드러지지 못했다.(…)하지만 축제와 시위의 현장에서 문학이 어떤 직접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한국문학의 생명력을 가릴 일은 아니다. 다만 ‘촛불’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사태이자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이라고 한다면, 촛불의 정신에 부합하는 문학을 얼마나 생산해왔고 앞으로 어떤 문학을 만들 것인가가 문학의 생명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²⁵⁾ 촛불집회 이후의 한국문학의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이 글의 저자가 백낙청이고 글이 실린 매체가 『창작과 비평』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문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창비’의 지극히 관성적인 태도를 대변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곧 이어 백낙청은 “촛불을 겪은 뒤로 기왕에 쓰여진 작품을 읽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²⁶⁾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글을 풀어나간다. 백낙청이 촛불 이후에 다시 읽게 된 시는 김수영의 「절망」이다.

이 시의 묘미로서 “바람은 딴 데에서 오고…”라는 구절에서 보이는 논리적이며 시적인 비약을 들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행에서 ‘끝까지’라는 단어의 울림이 내게는 새삼스럽다. 촛불시위 확대 직전까지도 ‘절망’에 안주하던 지식인들이 많았기에 그렇고, 촛불이 뜰해지자마자 다

25) 백낙청,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작과 비평』 142호, 2008, 14-15쪽. 참고로 위의 24번 주에서 논문작성자가 인용한 이문재의 말을, 백낙청은 이 인용문 중간의 각주에서 이미 인용하였다.

26) 위의 책

시 그 분노 섞인 절망으로 되돌아가는 활동가들 또한 적지 않기에 더욱이나 그렇다.²⁷⁾

이러한 성찰 이후에, 백낙청은 “당장에 촛불시를 쓰고 안 쓰고보다 ‘지구상의 축복’에 걸맞은 문학을 창작하고 향수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²⁸⁾라는 당위론으로 돌아가는데, 논문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당위론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의 절망에 대한 성찰로 보인다. 촛불시위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협이라는, 들불처럼 번진 시위의 양상과 비교할 때 어찌보면 미약한 이슈에서 촉발되었고, 그런만큼 놀라움도 더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회고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지만, 그 촛불시위는, 시위를 제안하고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스스로에게도, 한국사회가 점점 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경제논리를 통해 재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대안적 정치세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절망’적인 상황의 오랜 축적 끝에, 이 절망을 반전시키고자하는 염원의 표출 아니었을까? 그런데 무슨 율화증 같은 것을 꼭꼭 누르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이를 터뜨리는 ‘절망적’ 지식인을 목격하는 빈도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니, 백낙청은 이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민망함을 우선은 이 글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지식인의 관념적 조급성에 대한 반성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백낙청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촛불시위가 정확하게 오랫동안 축적된 절망을, 김수영의 시처럼 ‘바람은 탄 데에서’ 오듯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와서 흔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2008년의 촛불시위는, 2002년 노무현 후보 당선을 전후한 시기와 비교할 때, 사회적 냉소와 무기력의 한 가운데에서 표출된 것이었다. 발랄하고 자유롭고 창조적이던 촛불집회의 새로운 시위문화의 이면

27) 위의 책, 15-16쪽.

28) 위의 책, 17쪽. 백낙청이 언급하는 ‘지구상의 축복’은, “한국의 촛불은 지구상의 축복입니다. 나는 너무 황홀해서 촛불시 한편도 쓸 수 없었습니다”(고은·이장욱 대화, 「정박하지 않는 시정신, 고은 문학 50년」, 『창작과 비평』 2008년 가을호, 200쪽)라는 고은의 말을 그 직전에 인용한 후 나온 표현이다.

에, 역설적으로 1990년대 이후 가장 긴박하고도 근본적인 시민적 문제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시위는 백낙청의 말대로 '한국 사회의 체질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이었을 수도 있다. 한국문학은, 상당수 한국시민들이 그러하였듯이, 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러한 절박함에 반응하였으며, 그것이 절박함에 대한 반응이었던 만큼 반응의 감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논문작성자의 가정은, 서구의 소위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정치사회 지형도의 변화를 의식하면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논의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 앞서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일반에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좌파정당들에 대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불신이 축적된 지는 오래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실현가능하며 합리적인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좌파 사민당이라는 이미지는,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드라이브에서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었다. 그나마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수하는 정치세력이라는 사민주의 정당의 이미지가, 우파와 별 다를 바 없는 정치 테크노크라트 집단이라는 비판의 대상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좌우의 집권시기를 막론하고 악화되어가는 사회적 불평등과 개선되지 않는 실업문제, 금융자본의 갈수록 커지는 사회장악력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한국사회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경험한 것도, 비록 IMF 라는 특수상황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기대와는 달리, 소위 민주정부하에서도 빈부격차는 강화되었고, 경제성장률 수치를 유지하는 정책적 방편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에 기대고, 청년실업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고용의 형태는 갈수록 비정규직의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 이것이 민주정부 집권 10년 동안 진행된 한국의 사회경제 상황이다. 기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중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더 민주적인 언론환경과 사회분위기의 정착, 국가인권위원회로 대표되는 보편

적 인권의식의 재고 등 평가할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 놈이 그 놈'이라는 냉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치문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에 대해, 정치문화에 있어서 우파보다 덜 권위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를 표방하지만, 경제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우파와는 다른 실질적 대안을 제기하는 것을 회피하는 무능력하고 기만적인 정당, 어차피 세계 금융자본에 예속된 집단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시민적 판단이 갈수록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²⁹⁾ 이를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노무현 정부 말기 대통령 욕하기가 '국민 스포츠'라는 농담이 회자될 정도로 정치문화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진전된 점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가 야기하는 시민적 삶의 확대되는 불안정성도, 폭등하는 집값으로 대변되는 한국자본주의의 투기적 단면과 다수 시민들의 박탈감도 '문화 민주주의'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집권 하던 2007년 말 무렵 한국에서 유행하던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는, 노무현 정부 시대에도 더 확산되기만 하던 사회적 냉소의 이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노무현 스스로 집권시기에 '이미 권력은 경제로 넘어갔다'는 말을 내뱉었듯이, 한국의 금융산업과 경제 전반이 구조적으로 더욱 깊숙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회의였다. 이러한 회의 또한 절망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세계 금융자본의 전 세계적 장악력의 확대라는 국제적 층위에 놓여있는 만큼,

29) 가령 현재 집권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집권 직후 내각에서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며 비유럽계 이민 출신 장관들이 다수 포진하는 '문화적 민주주의'를 과시하였지만, 선거공약에서 내걸었던 새로운 부유세 도입을 포함한 경제 민주주의 공약들은 집권 일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사문화된 상황이다. 문화적으로만 좌파이고 나머지는 우파와 다를 바 없다는 냉소, 좌파적인 문화적 급진성이 우파와의 핵심적인 차별성이 사라진 사회경제 정책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일종의 '클리셰'가 되어버린 비판이다. 이러한 종류의 비판이 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의 다른 사민주의 정당들에도 번주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새로운 대안은 아득해 보이기도 했다.³⁰⁾ 한국사회의 대안부재의 이면에,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촛불시위와 함께 진은영의 문제제기가 한국문단에 불러 일으킬 파장을 예비한 2008년의 또 다른 상황은, 아마도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전후하여 정점으로 치달던 전세계적 금융위기이다. 이 위기가 미국의 서부프라이머 모기지, 즉 부동산 대출과 연계된 금융위기라는 점에서, 위기는 실질적이고 총체적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의 시민들 중 상당수가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홈리스'가 되었다. 미국의 시민들이 '점령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월 스트리트에 텐트를 치는, 미국 시민운동사에서 주목을 요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1980년대 초반 영미에서 출발하여,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붕괴를 거치면서 브레이크가 없는 듯 폭주하던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체제가 결정적으로 한계를 노출한 사건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지렛대삼아, 독재나 전체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사회복지망의 확립이라는 200여 년의 역사적 요구까지도 '사회주의적 무능력과 비효율성'이라는 비난으로 뭉뚱그려버리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무언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한국에서라고 고양되지 않을 수 없었고, 한국의 몇몇 주요계간지들도 세계금융위기를 특집이나 논문 및 평론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세계금융위기가 한국의 문학담론에 미친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면, 아마도 더 이상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거대담론 비판이 유지되기 힘들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전 세계의 상당 수 '개개' 시민들의 '미시적 일상'에 '구체'적인 파괴적 효과를 야기한 금융위기는, 이를 이해하고

30) 이 문제의 심각성을, 최근 그리스의 구제금융사태에서 전 세계인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목도하고 있고, 따라서 저항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아닌 '거대담론'을 필요로 하였다. 유토피아적 거대담론을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리오타르 류의 신학적·형이상학적 담론의 이론적·실천적 한계가 보다 명백해지고, 다양한 포스트담론들 중 하나인 프렌시스 후쿠야마 류의 '역사의 종말'론 등은 더 이상 발붙일 틈조차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상당수 문학담론들이 10여 년의 편차를 두고 뒤늦게 서구의 거대담론 비판들을 일정 부분 수용하였다면, 이러한 담론의 근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나 또한 정치나 사회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대담론의 추상적 이념성의 한계를 문학은 경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류의, 분명히 필요한 신중함이기는 하되 2008년 시점에서는 너무도 자주 접해서 공식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입장과 태도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즉 상황은, 거대담론/미시담론의 이분법 자체를 다시 해체 재구성해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를 해체 재구성하는 방법론에 일반적인 정답은 당연히 없다. 어쨌든 2008년 한국의 상황에서 요구되었던 것은, 1990년대 초입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미시적 일상과 경험을 거대담론과 다시 연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진은영의 「감각적인 것의 분배 :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는, 촛불시위와 세계금융위기가 몇 달 간격으로 발생한 직후, 즉 2008년 겨울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가 발생하였다. 철거민과 경찰 쪽의 책임공방 여부를 떠나서, 이토록 위험하고도 강압적인 작전이 여전히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근거 자체를 다시 의문부호 안으로 밀어넣었다. 진은영의 글로 인해서 촉발된 다양한 글들 대다수가 주로 문학성과 정치성, 혹은 텍스트적인 실천과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 사이의 함수관계를 다소 원론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보다 포괄적인 사회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까지 해명하고자 하였다. 용산참사 현장에, 이어서 두리반 농성장에 다수의 시인과 예술가

와 평론가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공연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희망버스로, 세월호 사태에 대한 작가들의 대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진은영의 문제제기에 대한 뜨거운 반응과 작가들의 실천적 현장개입이 동시에 진행되기까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상황은 무르익고 있었다. 그리고, 위에서 해명을 시도하였듯이 이러한 상황전개는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볼 때 1990년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기원의 이름은 '절망'이자 '절망을 반성하지 않는 절망'이다. 이를 김동규가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 "그녀의 고민이 유독 빛나는 까닭은 그것이 니힐의 밤을 지새운 고민이며, 1990년대 이후 비정치적인 예술 동향과의 '내부적 대결'이기 때문이다."³¹⁾

4. 자크 랑시에르의 재전유에 대한 질문들

결국 진은영이 제안한 문학과 정치현실의 재결합은, 비록 자크 랑시에르의 입론에 기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으로 환원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진은영이 랑시에르를 발견한 계기는, 어디까지나 1990년대 초반부터 오랫동안, 한국문학과 한국의 현실 및 세계사적인 사회적 변화 양상이 중첩되어 전개되는 과정을 견디면서 숙성된 그의 고민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은영의 고민만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진은영의 문제제기 직전의 문학적 담론들과 이후에 이어진 논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진은영의 문제제기 자체가 복합적인 층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어진 논쟁들 또한 필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층위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일일이 분석하는 수고를 이미 여러 연구자와 비평가들이 수행하였으므로, 마지막으로 진은영이 자크 랑시에르를 한국의 현실과 접합시키는 양

31) 김동규, 『멜랑콜리 감성의 정치적 힘 : 김수영·진은영』, 『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 멜랑콜리아』, 문학동네, 2014, 385쪽. 진은영이 1990년대 이후 '내부적 대결'을 수행한 대상을 '비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규정 아닌가, 차라리 '다른 종류의 정치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김동규의 분석의 핵심은 적확하고 유효하다.

상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특히 문성욱의 진은영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참고하면서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논문의 서두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자크 랑시에르의 입론과 진은영의 자크 랑시에르 해석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에 대해 문성욱은 설득력 있는 비판적 분석을 제기하였다. 논문 서두의 논의를 좀 더 이어나가자면, 자크 랑시에르에게 있어서 문학과 정치의 무조건적인 상관관계가, 진은영식의 문학적 텍스트와 사회적 텍스트의 결합에 대한 당위적 요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문성욱은 지적하였다. 문성욱은 이러한 진은영의 관점을 “탈-텍스트론”, 혹은 “텍스트 상대화론”³²⁾으로 규정하면서, “진은영의 논리에서 텍스트/문학은 기이한 방식으로 도구화된다”³³⁾고 판단한다 ; “진은영에게서 텍스트 창작의 문제가 어느새 이질적 텍스트와의 접합이라는 다른 문제로 치환된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문제 일반이 그의 시야 바깥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이다.”³⁴⁾

문학텍스트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텍스트외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를 가지든지, 텍스트 자체가 문제라는 문성욱의 주장은 타당한 일면이 있다. 그런데 진은영의 주장을 이에 대립되는 ‘문학의 도구화’, 텍스트 자체의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한 부차화로 규정할 수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이다. 문학적 텍스트의 쇄신을 위해서라도 ‘방법론적으로’ 텍스트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진은영의 주장을, 곧 탈텍스트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일관되고도 명확한 근거를 논문작성자는 진은영의 글에서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진은영의 주장에서 논문작성자가 기시감을 느낀 것은 참여문학론 등의 입론이 아니라, 차라리 20세기 내내,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부상하였던 다양한 서구 아방가르드들의 입장이다. “삶과 정치가 실험되지 않는 한 문학은 실험될 수 없다”³⁵⁾라는 진은영의 입장이, 각종

32) 문성욱, 「문학의 정치, 텍스트의 정치」, 앞의 책, 505-506쪽.

33) 위의 책, 509-510쪽.

34) 위의 책, 509쪽.

35) 진은영, 앞의 책, 34쪽.

아방가르드들의 선언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초현실주의자들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고, 시는 근본적으로 문학이 아니라 삶과 결합해야 문학을 고양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래서 그 결과 정치적 좌경화로까지 이어질 때, 그렇다고 해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시를 방기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둘은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강한 긴장관계에 놓이며, 이러한 긴장 자체가 글쓰기의 원동력인 작가나 경향들이 존재한다. 진은영은 전형적으로 그러한 작가이다.

이에 대해서 정작 자크 랑시에르 본인은, 진은영이 자신의 논지를 크게 오독한 것은 아니라고 할런지도 모르겠다. 랑시에르는 아방가르드를 “정치적(politique) 혹은 “전략적(stratégique)” 아방가르드와 “미적(esthétique)” 아방가르드로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방가르드라는 개념이 예술의 미적 체제에서 의미를 가진다면, 바로 이 측면이다 : 예술적 새로움의 선발대가 아니라, 도래할 삶의 감각적 형식과 물질적 근간의 발명이라는 측면. 이것이 바로, 정치를 삶의 총체적 프로그램으로 변형시키면서, ‘미적’ 아방가르드가 ‘정치적’ 아방가르드에 기여한 것, 혹은 그러기를 원했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우선 정당들과 미적 운동들의 관계의 역사는, 정치적 주체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사상에 다른 아닌 이 두 아방가르드 사이에서, 때로는 원만하게 유지되었고 때로는 격렬한 고발의 대상이 되었던 혼돈의 역사이다 : 당에 대한 원-정치적 관념, 즉 변화의 핵심조건들을 집약하는 정치적 지성이라는 사고와, 정치적 주체성에 대한 포괄적인 메타정치적 사고, 즉 도래할 공동체를 예감하는 혁신적인 감각적 경험 양식에 내재하는 잠재성에 대한 사고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은 전혀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혼돈이, 오늘날 일반화된 완고한 편견대로, 감각의 총체적 혁명이라는 예술가들의 포부가 전체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차라리 정치적 아방가르드라는 이념 자체가 전략적 구상과 미적 구상 사이에서 분할되었다는데 있다.³⁶⁾

예술적 아방가르드에 내재하는 한 편향, 즉 예술적 새로움에 대한 실험을 군사적 전위 혹은 전위정당의 지도력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랑시에르는 비판적이다. 이러한 군사전략적인 예술적 전위를 포함해서, 대중과 분리된 소위 '지도적' 위상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모든 관점에 대한 랑시에르의 거리두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가 스승인 알튀세르와 결별하면서 쓴 『알튀세르의 교훈 *La Leçon d'Althusser*』³⁷⁾이 우선 그러하다. 알튀세르가 주체의 이데올로기적인(즉 허위의식적인) 형성에 대한 비판기제로서 철학의 위상을 '과학'으로 설정하는 것, 즉 교육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의 기만에 대한 최종판정 심급으로 철학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을 랑시에르는 비판한다. 그 '과학', 그 '최종심급'의 담지자로서의 자격이나 권위를 철학자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나 허위의식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평생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던 알튀세르가, 정작 스탈린주의적인 프랑스 공산당의 '이데올로기적인 허위의식'에 대한 '과학적 비판'은 유보하면서, 자신은 철학자로서 과학을 담당하고, 프랑스 공산당은 민중에 영합하거나 민중들의 의식을 필요에 따라서 조작하는 현실정치를 담당한다는 식의 태도에 랑시에르는 근본적인 거부의를 표명한다.³⁸⁾ 랑시에르가 특히 『무지한 스승 *Le Maître ignorant*』³⁹⁾에서 해방의 방법론적 원칙으로서의 '평등'의 원리를 분명히 하는 과정은, 예술적 아방가르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치군사적 전위 편향에 대한 거부로도 이어진다. 서로 다른 경험과

36) Jacques Rancière,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op.cit.*, p.44-45. (국역본 39-40쪽. 번역은 논문작성자가 프랑스어 텍스트를 근거로 수정하였다.

37) Jacques Rancière, *La Leçon d'Althusser*, Paris, Gallimard, 1974.

38) 랑시에르의 알튀세르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회고는, Jacques Rancière, *La Méthode de l'égalité*, Paris, Bayard, 2012, p.20-32를 참고할 수 있다.

39) *Le Maître ignorant. Cinq leçons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Paris, Fayard, 1987.

역사를 가진 개인, 집단, 영역들의 '이질성'을 '위계'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평등'을 해방,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주의의 출발점,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방법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랑시에르의 기본 입론이다.

이러한 사유의 연장선상에서, 랑시에르가 특히 실러를 전범으로 삼아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삶의 총체적인 감성적 재편을 위한 기획을 '미적 체제'의 전범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실러적 기획에서 랑시에르가 이끌어내는 교훈은, 삶-인간-정치-예술의 총체적인 연쇄에 대한 사고와 기획이다. 이러한 기획은, 좁은 의미의 '치안'으로서의 정치를 넘어서, 예술을 매개로 정치를 삶 전체로 개방한다. 비록 특정시기에 따라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이동해왔다고 하더라도, 랑시에르가 자신의 작업과 저서들을 제도적인 학문적 구분에 따라 문학예술과 윤리와 정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거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 작업들은 정치에서 미학으로 가는 이행이 아니다. 한편으로 내가 말하는 고유한 '정치'는 항상 영토들 사이의, 분과 학문들 사이의 분할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런 분할은 지적 질서를 지배하고 그것을 사회 질서에 복무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다. 다른 한편, 나의 관심의 중심에는 항상 다음의 공통점, 다음과 같은 경험의 경첩이 있었다. 정치적 역동성이 말과 이미지의 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경험, 예술적 발명이 공동체 안에서 물체들의 무게와 그 물체들의 가시성의 자리를 옮기려고 애쓰는 경험."⁴⁰⁾

위의 말을 랑시에르가, 굳이 구분하자면 '정치철학서'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의 한국어 서문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시사적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위에서 인용한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의 내용과 일치한다. "도래할 삶의 감각적 형식과 물질적 근간의 발명"이 미적 아방가르드의 바람직한 방향성이자 동시에 정치적 아방가르드에 기여하

40)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역, 길, 2008, 29-30쪽.

는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적 아방가르드는, 이질적인 층위들을 방법론적으로 '평등하게' 충돌시키고 접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⁴¹⁾ 즉 '지도적 위상'을 자임하는 아방가르드는 이미 그 태도에서부터 실패한 아방가르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미적 아방가르드와 전략적 아방가르드 사이에 일정한 혼돈이 있어왔다. 그런데 그 근본 이유는, 실러적 의미에서의 '미적 교육'에 기원을 둔 미적 아방가르드의 책임보다는, "차라리 정치적 아방가르드라는 이념 자체가 전략적 구상과 미적 구상 사이에서 분할되었다는데 있다." 즉 정치적 아방가르드 고유의 정치전략적인 집중과 효율성의 지향이, 정치적 아방가르드가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인 미적 아방가르드의 총체적인 기획과의 사이에서 분열되었던 것이 더 큰 혼돈의 원인이다. 그런데, 랑시에르의 입장을 조금 더 연장해 보면, 역으로 미적 아방가르드 또한, 그것이 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총체적으로 사고하는 한, 분열의 원인의 일단을 제공하지 않을 도리는 없다. 즉 감각의 총체적 혁명이라는 예술가들의 포부가, 가령 의도와는 무관하게 파시즘이나 스탈린의 소비에트체제에서 오용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그 주된 책임은 리오타르 식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적 아방가르드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정치적 전위들의 조급증과 위계적 사고에 있다.

랑시에르의 입장에 대한 이러한 요약적 해석을 바탕으로 다시 진은영에게로 돌아와 보자. 진은영의 삶과 정치를 새롭게 접합해보고자 하는 실험적 태도는, 불가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은 원천적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 더 큰 문제는, 그 불가피한 위험성이 두려워서 시도를 회피하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정치와 예술의 접합을 시도하는 미적 아방가르드는 차치하고라도, 전혀 직접적인 정치

41) 가령 랑시에르가 『문학의 정치』에서, 플로베르의 작품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성격을 사물들 사이의 봉건적 위계질서를 해체한 것에서 찾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Jacques Rancière,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op.cit.*, p.15-20을 참조할 수 있다.

적 의도가 없어 보이는 작품들이 정치적 해석에 휘둘리는 것조차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 랑시에르가 분석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모든 사물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이는 플로베르의 작품이 플로베르 당대의 대다수 비평가들에게는 민주주의적 이념의 표지이고, 사르트르에게는 반동 부르주아의 지표이며, 랑시에르에게는 또 다른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2장에서 인용한 『감각적인 것의 재분배』의 다음 문장들을, 문성옥의 해석보다는 좀 더 개방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즉 랑시에르의 보다 총체적인 입론을 고려하면서 독해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 “문제의 핵심은 미학의 정치와 정치의 미학 사이의 알맞은 상관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과 정치가 섞이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섞인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의 제 미학이 있고 미학은 제 정치가 있다.” 이 문장의 앞뒤로 많은 사례들이 요약적으로 열거되는데, 랑시에르는 이 문장 바로 앞에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 시대에 따라서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교리 문답서”, “계급투쟁에 대한 무지한 부르주아적 감상주의”, “그 민주주의적 의미가 혁명적 폭동의 소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 발장의 개인적이고 거의 숨겨진 고집에 의해서 주어지는 한 편의 위대한 시”로 해석되는 예를 제시한다.⁴²⁾ 이 문장들 바로 뒤에 제시되는 잠정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920년대의 디스의 그림들, 1930년대의 르누아르, 뒤비비에르 또는 카르네의 ‘포폴리즘적’ 영화들 또는 1980년대의 시미노 또는 스콜세지의 영화들이 정치적 비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사회적 차이들에 대한 생생한 시정에 관한 또는 인간사의 환원될 수 없는 무질서에 관한 비정치적 시선에 적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치의 상태다**”⁴³⁾(강조는 인용자).

랑시에르에 따르면, 결국 문학적 텍스트이든 여타 미술이나 영화 텍스

42) 자크 랑시에르, 앞의 책, 88쪽.

43) 위의 책.

트이든,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 중심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비역사적인 태도이다. 텍스트는 항상 사회와 정치에, 더 넓게는 당대의 '감각의 분배' 상태와 연동되어서만 존재한다. 랑시에르는 참여문화론에 비판적인 만큼 텍스트 중심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랑시에르가 20세기 초에 발원한 모더니즘의 다양한 지류들 가운데 순수한 예술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태도들이나 20세기 중반의 구조주의적인 텍스트의 자율성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텍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텍스트 중심주의는 동의어가 아니다. 문성욱 또한 이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텍스트를 사회정치상황과 별도로 궁극적인 최종심급으로 설정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만약 진은영이 랑시에르의 기본적인 입론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문학과 정치의 직접적인 결합에 대한 실험으로 다소간 '과잉해석'한 측면이 있다면, 역으로 문성욱은 랑시에르의 입론을 텍스트 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간 '축소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게다가 문성욱이 이러한 난관에 대한 타결책으로 제시하는,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는 문학과 작품의 텍스트성 자체에 몰두하는 문학 사이의 역할 분담론은 위험해 보인다 ; “하지만 여기에 답하기는 어렵지 않다. 위계가 아니라 역할이, 각각의 특수성이 문제다. 싸움이 두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싸움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은 서로 다른 싸움이다.”⁴⁴⁾ 그러나, 이 문제만큼 답하기가 힘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자크 랑시에르의 문학과 정치에 대한 포괄적인 논지도, 1960년대 참여문학 논쟁 이래 한국문학사도 공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이 '위계'가 아니라 '역할분담'이라고 문성욱은 말하지만, 궁극적인 문학성을 특정 텍스트와 역할에 부여한다면 그것은 위계이다. 설사 위계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는 텍스트들이 '어차피' 현장과 상황속에서 소멸될 운명이라는 뉘앙스는, 어찌보면 1980년대 민중문학의

44) 문성욱, 「문학의 정치, 텍스트의 정치」, 앞의 책, 521-522쪽.

부정적인 양상을 계속 고수해도 좋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역할 분담이 실제로는 엄청난 충돌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용한 랑시에르의 아방가르드 분석이 보여주고 있다. 최소한 진은영은 양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 속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직업해 나가기를 원하지, 이러한 편리하지만 관념적인 역할분담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 점은 문성욱이 꼼꼼하게 분석한 김수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론은, 자크 랑시에르의 입장이 시사하듯이 정치에도 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진은영은 랑시에르의 기본적인 전언에 충실하다.

5. 나오는 말 : 지연된 만남과 새로운 시작

결국 남는 문제는, 아마도 프랑스 및 서구 문학예술사의 전개과정과 현 상황, 그리고 한국의 그것에 무시 못할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떠올리며 진은영이 집회현장에서 박노해나 백무산을 환기할 때, 그토록 가까운 과거에 그토록 격렬하게 정치현실과의 직접적인 결합을 시도했던 문학적 경험은 프랑스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진은영의 입장이 개진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해명을 3장에서 시도하였지만, 따라서 1990년대를 전후한 사회역사적 상황과 문학적 상황의 함수관계에 대해서도 되짚어 볼 대목이 있다. 진은영이 제기한 입장이, 문학과 '직접적인' 사회정치 현실의 재결합을 주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합이 고조에 이르렀던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한 재성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진은영 자신이 그러한 재성찰의 일단을 제시한다.

박노해와 백무산은 김수영이 말한 “시를 쓰는 지계꾼”의 전범이며 이들의 등장은 새로운 미학적 주체의 탄생이다.(…)이들의 출현이 갖는 미학적 중요성은 자명한 것이다. 시작은 머리카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지계꾼이 자기 삶을 스스로 쓰는 것, 더욱이 지계꾼이 시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통념을 거부하면서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미학적 모험이다. 바로 여기에 낡은 삶에 저항하며 새로운 삶을 생산하는 일종의 미학적 자율성 또는 감각적 자율성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존재한다. 이 한국 노동자들의 시는 랑시에르의 표현대로 인민의 삶을 감성화(esthétiser)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⁴⁵⁾

이러한 진은영의 입장 또한 많은 토론과 반론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따라서 별도의 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 논문이 기왕에 진은영의 논의를 맥락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러한 진은영의 입장을 맥락화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랑시에르의 이론적 지평과 진은영의 랑시에르 차용이 정확히 일치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듯 하다. 가령 랑시에르가 『프롤레타리아의 밤. 노동자의 꿈의 문서』 *La Nuit des prolétaires. Archives du rêve ouvrier*⁴⁶⁾에서 예로 드는 1830년대 프랑스의 특정 노동자 그룹은, 정치적 해방의 지평을 자신들의 즉자적인 경험적 삶과 '온몸'으로 결합시킨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 그들은 잠을 줄여가며 읽고 토론하고 시를 쓰고 신문을 발간하는 작업, 즉 전형적으로 '부르주아적인' 작업들에 몰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루하고 괴롭고 단조로운 노동을 증언하기보다는, 그와는 다른 삶을, 즉 그들이 꿈꾸는 삶을 즉각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이를 랑시에르는 노동자들에게 지정된 노동자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 즉 감각적 질서의 총체적 재구성을 시도한 사례로 간주한다.⁴⁷⁾ 진은영이 이러한 랑시에르의 저작을 참조하면

45) 진은영, 앞의 책, 48-49쪽.

46) *La Nuit des prolétaires. Archives du rêve ouvrier*, Paris, Fayard, 1981.

47) 랑시에르의 말라르메 론이나 랑시에르의 이러한 노동자계급 론에 대해서 공히, 관념적으로는 급진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사회적 실천을 면제해주는 빌미

서 떠올리고 실천으로 옮긴 구상이,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것처럼 “재건축 철거에 맞서 투쟁 중인 건물에서 아방가르드 시인들의 작품을 낭송하기, 학습지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광장을 향해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왕유와 소동파를 베껴 쓰기, 투쟁 기금으로 마련한 백설기를 먹으며 카프카의 소설들과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과 만난 첫인상에 대해 쓰기”⁴⁸⁾ 등이다. 이러한 실천은 1980년대 박노해나 백무산의 시적이고 정치적인 실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노동자들의 몇몇 르포문학이 출간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 노동자계급을 문학적 대상이 아니라 문학적 실천 주체로 상정하는 이론과 실천이 이어졌지만, 이런 종류의 실천은 상상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동시에 이런 종류의 새로운 실천의 문학적 효과와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회의하는 입장이 제기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 자체가 막 걸음마를 내딛은 실험의 일환이며, 사후적 효과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시간의 몫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곳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진은영을 비롯한 작가와 예술가들의 실천은 중요하다. 노동자 주체 문학에 대한 본격적 시도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그 흐름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노태우 정부의 전두환 정부와의 또 다른 차별성으로 인해 급격하게 사그라들었다.⁴⁹⁾ 그런데 역으로, 이러한 이념적 지형도의 변화

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혹은 방법론적 평등을 주장함에도 랑시에르 저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선 프랑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랑시에르를 직접적인 논의대상으로 삼을 다음 논문에서 전개하고자 한다.

48) 진은영, 「시, 송고, 아레테 : 예술의 공공성에 대하여」, 『비교문학』 61집, 2013. 앞의 책, 203쪽.

49) 가령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과의 점점까지도 제시한 1989년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정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외교정책에 있어서 아직 소비에트가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된 1990년 한소수교, 그리고 1992년의 한중수교 등이 운동권에 미친 파장과 혼돈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더불어서 사회주의 이념의 급격한 퇴조에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와는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사고와 기획을 글로 표현한다는 것, 랑시에르 식으로 이야기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을 보이고 들리게 만드는 실천은, 그 때 아직 시작단계에 있었다. 그 시작이 이념적 참여함과 맞닿아 있었던 만큼, 그 목소리는 가파르게 정치투쟁에 연동되어 있었다. 바꿔 이야기하면, 보다 폭넓고 복합적인 삶과 사회 전반에 대해서, 노동자 개인 및 그룹들이 어떤 다양하고 이질적이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지는 제대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급격한 상황변화와 함께 쇠퇴한 것이 노동문학이다. 진은영은 직접적으로 박노해와 백무산을 적시해서 거론하고 있지만, 작가의 계급계층을 막론하고 포괄적으로 보다 다양한 민중문학의 흐름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사회의 전개과정이 1980년대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과거의 문제가 되었을텐데,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진단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문학사에서 이 민중문학의 역사는 멀다면 멀지만 가깝다면 가까운 불과 20년 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진은영 세대가 입증하듯이 그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고, 그 시절의 문제의식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 축적된 것이 현재이다. 즉 1980년대의 정치적 문학이 실제로 문학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급격한 외적변화와 함께 일거에 상실했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미완의 기획’으로 남아 있다가 결국 현재 다른 형태로 재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은영과 상당 수 작가들은 현장과의 만남과 자신만의 시세계를 병행하면서 접점을 탐구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실천을 랑시에르의 입론과 비교하는 것은, 실천적인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랑시에르가 한국문학사의 맥락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와 문학의 관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랑시에르가, 한국에서 서구적 맥락과 처방을 권할리도 만무한 일이다. 랑시에르는 그답게, 철저하게 한국의 경험적인 문학적 상황과 현실에 천착해서 관찰

과 연구와 실천을 수행할 것이다. 진은영의 제안과 실천은, 랑시에르의 입론과 연동되어 그러나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고 다른 실천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랑시에르의 말대로 문학과 정치의 연결선을 만드는 방식에 주어진 정답은 없다. 결국 랑시에르에게서도 진은영에게서도, 프랑스와 한국이라는 서로 다른 사회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한 탐구와 실천이다.

- 김춘식, 서동욱, 조강석, 조연정, 진은영 좌담, 「우리 문학의 이전과 이후 : 2000년대 이전과 이후의 우리 시」, 『사이버문학광장 웹진』 2010년 1월호, <http://webzine.munjang.or.kr/archives/3836>.
- 문성욱, 「문학의 정치, 텍스트의 정치」, 『문학과사회』 110호, 2015, 496-527쪽.
- 백낙청, 「문학이 무엇인지 다시 묻는 일」, 『창작과 비평』 142호, 2008, 14-40쪽.
- 백지은, 「“문학과 정치” 담론의 행방과 향방 : 2000년대 중후반의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비평문학』 36호, 2010, 103-127쪽.
- 신형철, 「아름답고 정치적인 은유의 코뮌 : 진은영의 『우리는 매일매일 읽기』」, 『문학동네』 58호, 2009, 396-415쪽.
- 「가능한 불가능 : 최근 ‘시와 정치’ 논의에 부쳐」, 『창작과비평』 147호, 2010, 369-386쪽.
- 심보선·이현우·오은·이문재 좌담, 「‘촛불’은 질문이다」, 『문학동네』 56호, 2008, 25-52쪽.
- 이경진, 「‘아토포스’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방가르드」, 『창작과비평』 167호, 2015, 254-273쪽.
- 이장욱, 「시, 정치 그리고 성애학」, 『창작과비평』 143호, 2009, 294-314쪽.
-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 그린비, 2014.
- 『우리는 매일매일』, 문학과지성사, 2008.
-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양창렬 옮김, 도서출판 궁리, 2008.
-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역, 길, 2008.
- 『감성의 분할 : 미학과 정치』, 오윤성 역, 도서출판 b, 2008.
- 『문학의 정치』, 유재홍 역, 인간사랑, 2011.
-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Kafka-Pour une littérature mineure*, Paris, Minuit, 1975
- Jacques Rancière, *La Leçon d'Althusser*, Paris, Gallimard, 1974.

- *La Nuit des prolétaires. Archives du rêve ouvrier*, Paris, Fayard, 1981.
- *Le Maître ignorant. Cinq leçons sur l'émancipation intellectuelle*, Paris, Fayard, 1987.
- *Aux bords du politique*, Paris, La Fabrique, 1998.
- *Le Partage du sensible. Esthétique et politique*, Paris, La Fabrique, 2000.
- *Politique de la littérature*, Paris, Galilée, 2007.
- *La Méthode de l'égalité*, Paris, Bayard, 2012.

〈Abstract〉

Jacques Rancière's "The Politics of Literature"
Re-contextualized: With a Focus on Eunyong Jin's
Inquiries

Jung, Eui-jin
(Sangmyeong University)

Eunyong Jin's "The Re-distribution of the Sensible: On Poetry of the 2000s," which was published in the journal "Creation and Criticism (Winter, 2008)" caused a great stir in Korean literature and triggered various follow-up discussions. In this piece, Eunyong Jin made references mostly from "Politics of Aesthetics: The Distribution of the Sensible" by Jacques Rancière, a French scholar of politics and aesthetics. Her referential focus was to newly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Even afterwards, Eunyong Jin had drawn from Rancière new thoughts that could turn a dichotomously contrasting relationship between a poet's participation in reality and poetry's artistic value into a (more) productive interactional relationship. In order to plan and practice a reformation of senses and thoughts whose literary and artistic creativity are based on social customs and on a larger scale, a new reformation of the society's political geography, Eunyong Jin underwent various activities to re-contextualize Rancière's argument on constant reformation of "The Aesthetic Regime of Art" for situations in Korea. Writers who actively engaged in situations such as the Yongsan disaster and the Duriban struggle, while

choosing to share various poetic tendencies and texts that hover between a so-called dichotomy of art and society are one good example. Ensuring that poetry and literature will maintain a continuous openness toward fluid and complex realities of the society, thereby giving the sensibility of a poet him- or herself new artistic and political motives and reset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politics above a new horizon was the position held by and practiced by Eunyoung Jin.

Looking back at Eunyoung Jin's work from a socio-economic context, her work is interlocked with the ne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way of thinking in respect of Korean society and the current economic system based on capitalism and a series of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s such as the 2008 Candlelight Protest (in South Korea),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that originated in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and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and later spread worldwide and the Yongsan disaster in the beginning of 2009. These situ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to newly refresh in mind the Korean literature's history of rapid advancement along with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and also of rapid decline in the 1990s, i.e., the memory of literature's revolutionary tendency. However, this memory is also connected with the evils of thought and practice that treat literature as a tool for revolutionary movement(s). Literary practice to confront the socio-economic contradiction that was structural and fixed from an abstract social-scientific perspective often simplified the reality of society where more diverse, complex and foreign situations coexisted and interpenetrated one another. In this regard, the reason Eunyoung Jin actively accepted Jacques Rancière's argument that emphasized the independent and creative confrontation of literary works, at least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issue, rather than obsessing over the socio-economic foundation and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can be understood. In the end, regardless of the different socio-economic contexts between France and Korea,

(it is clear that) the main idea for both Jacques Rancière and Eunyoung Jin is the study and practice of possibilities. Eunyoung Jin is faithful to Rancière's fundamental principle that there is no pre-determined truth. Therefore, although the task of critically reviewing Eunyoung Jin's understanding of Rancière from a perspective of theoretical accuracy is necessary and has meaning, but is not without limitations as the focus of the problem is the study and practice of possibilities.

Key words: Jacques Rancière, Eunyoung Jin, Literature and Politics, The Aesthetic Regime of Art, The Re-distribution of the Sensible

논문접수일 : 7.15 / 심사기간 : 7.16 - 8.5 / 게재확정일 : 8.10
